



# 나를 지으신 주님

(원제: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Tommy Walker

천관웅 역



1. 나를- 지으 신 주님- 내안- -에게서- -

2. 그는- 내아- 버거- 난그- -의소유- -



처음- 부터 내 삶은- 그 의 손에- 있었죠- -

내가- 어딜 가든거- 날 떠나지- -않죠- -



내이- 름아- 시죠- 내모- 든생- 각도-



내흐- 르는- 눈물- 그 가 닦아- 주셨죠- -

아바- 라부- 를때- 그 가 들으- -시죠- -

Copyright (C) 1998 Doulos Pub./Maramatha! Praise Inc. Adm. By CopyCare Kore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Translated by 천관웅 . Approved by CopyCare Korea.

사40:1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Isa) 40:1~31 Comfort My People!

‘삶은 고해(苦海)’ – 이것은 인생의 진리 가운데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서 소망을 찾지 못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이 오지만 어려운 세월이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시(Ps) 119:71 다윗

➤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전(1 Co) 15:10

이사야서 ‘작은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66 장 가운데 1~39 장은 고난에 대하여, 40~66 장은 구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치 구약 39 권 + 신약 27 권의 구조와 같이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주변의 열방들을 신뢰하려는 이스라엘을 향한 엄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v. 39:6

이스라엘 패망 후 앗수르의 공격으로 유대가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결국은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포로생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자기점검:** 내 상황이 혹시 유대 백성과 같이 절망적 상황입니까?

시(Ps) 42:5 환경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 I. 고난의 이유

- 📖 v.36:1 히스기야 14년 – 앗수르 (산헤립 왕) 군대 이끌고 쳐들어 올  
v.37:36~38 여호와 사자가 앗수르 185,000 죽임, 앗수르 왕 죽임  
v.38:1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 → 치유 → 교만  
v.39:6~7 네 집의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긴 바 + 바벨론 환관

■ 교만해지는 모습 우리의 죄성 때문이다. (사고, 살인, 전쟁, 기근의 이유?)

- 📖 창 3장: 완전한 에덴에서 – 하나님처럼 되려한 인류 **실락원**  
렘(Jer) 3:21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  
마(Mt) 18:7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세상에 화가 있도다

하나님보다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 고난을 허락하신다. 열강들을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신다. 내 인생에 고난? 내가 의지하려 했던 것들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고난을 허락하시고, 스스로 주어진 인생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 II.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 A. 사랑의 하나님 (1~11)

- 📖 v.1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 복음을 선포  
v.2 예루살렘의 마음에 달도록 말하여... 노역의 때가 끝났고  
v.3~11 포로생활로 죄의 값을 치른 것이 아니고 – 메시아

지금은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장차 임할 강한 자'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다. 포로생활로 죄의 값을 치른 것이 아니다. v.11

### B. 능력의 하나님 (12~26)

- 📖 v.17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 것도 아니라  
v.26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크심 앞에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은 뿐이다. v.15

### C. 신뢰의 하나님 (27~31)

- 📖 v.27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 주실 하나님  
v.28 영원하시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 – 한계가 없으신  
v.29~31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

## III. 축복의 통로

### A. 하나님의 사람 – 복음을 나눌 5/12 7:30pm

- 📖 v.7:14, 9:6, 11:1, 53:6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예언들  
v.44:28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생각과 지식을 초월**

### B. 하나님의 교회 – 선교사 섬김 4/28-30 3일간 설립기념 특별집회

- 📖 빌(Phi) 4:15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살전(1 Th) 1:3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요삼(3 Jn) 1:8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마음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동역자로,  
축복의 통로로 쓰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 마음으로 동역합시다!!